

### 3·1운동과 세브란스의 독립운동\*

신 규 환\*\*

<자 례>

- |                         |                      |
|-------------------------|----------------------|
| 1. 머리말                  | 2) 의학생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학생 |
| 2. 세브란스 독립운동의 기반        | YMCA                 |
| 3. 3·1운동과 세브란스 독립운동의 전개 | 3) 간호부 독립운동          |
| 1) 교직원 독립운동             | 4. 맺음말               |

#### <국문요약>

이 글은 3·1운동 시기 세브란스가 어떻게 3·1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세브란스 출신들이 3·1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제중원 설립 이후, 제중원의학교 출신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3·1운동 이전부터 의료활동과 선교활동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문명개화와 고등교육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3·1운동 전후 세브란스인들이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데에는 제중원의학교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등이 지닌 정치사회적인 독특한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기독교 선교기관이자 의료기관으로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손쉽게 왕래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거점이 되어 있었다. 주로 기독교계 인사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또한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교직원, 의사, 간호사, 학생, 환자 등 다양한 직군과 인물들이 모이고 교류했던 곳으로 정보수집 및 선전활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 배출 이래로 세브란스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양산했으며, 안창호, 여운형,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과도 다양한 인적 교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갑성 등 교직원들은 기독교계의 독립운동을 조직화하였고, 학생들은 YMCA 조직을 통해 3·1운동을 전국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스코필드 교수 등은 3·1운동의 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간호부들은 가두시위 참가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의 지원, 독립운동자

\* 이 논문은 2017년 국학연구원 연세 한국학 저술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연구부교수, 동아시아의학사 전공.

금 모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핵심어: 제중원,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의전, 3·1운동, YMCA, 독립운동

## 1. 머리말

1908년 6월, 세브란스병원의학교에서 제1회 졸업생이 7명 배출되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이미 학창시절에 군대해산에 맞서 일본군과 싸웠던 한국군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국권상실의 슬픔을 체험했고, 이러한 경험들은 그들이 구국운동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1910년 일제의 한국병합을 계기로 김필순, 박서양, 신창희, 주현측 등 네 명은 해외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국내에 남아있던 김희영 등도 만세운동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3·1운동 직전까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와 세브란스간호부양성소를 졸업했던 적지 않은 졸업생들이 국내외의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sup>1)</sup>

1919년 3·1운동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3·1운동은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세계에 알린 쾌거였다. 세브란스는 3·1운동의 한 중심에 있었으며, 세브란스의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등 적지 않은 세브란스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하였다.<sup>2)</sup> 세브란스인들이 3·1운동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sup>3)</sup> 그러나 아직까지도 3·1운동을 포함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세브

- 1) 3·1운동 이전인 1917년 당시 세브란스 졸업생 61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해외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부양성소 졸업생들 역시 1917년까지 졸업한 22명 가운데 사망한 1명을 제외하고 4명이 만주에서 활동하였다. 박형우, 「1910년대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6. 세브란스 출신 의사 및 간호사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김동수, 「세브란스와 함께 바람에 시달리며-이용설」, 『기독교사상』10-1, 1966.1. ; 이애숙, 「정종명의 삶과 투쟁-민족과 여성의 해방을 위해 싸운 한 여성투사 이야기」, 『여성』 3, (여성사연구회, 창작과비평사; 1989); 박형우, 「세브란스의학교 제1회 졸업생 신창희(申昌熙)의 생애와 활동」, 『연세의사학』 11-1, 2008.6. ; 박형우·홍정완, 「박서양의 의료활동과 독립운동」, 『의사학』 15-2, 2006.12. ; 이규삭·양정팔·여인석, 「최동의 생애와 학문」, 『의사학』 13-2, 2009. 12. ; 이꽃메, 「일제 강점기 산과 정종명의 삶과 대중운동」, 『의사학』 21-3, 2012.12. ; 김숙영, 「간호부 이정숙의 독립운동」, 『의사학』 24-1, 2015.4. 등을 참고.
- 2) 본고에서 말하는 세브란스인은 제중원의학교,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세브란스간호부양성소 등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활동했던 의사, 간호사, 교수, 학생, 직원 등을 말한다.

란스인들의 정확한 참여 인원이나 구체적 공적 내용 등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또한 3:1운동 이후 세브란스인들의 독립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 나갔다. 기존처럼 의사 혹은 간호사의 신분을 활용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의사 혹은 간호사의 직분을 버리고 직업적인 운동가로 변신하기도 했다. 특히 3:1운동 직후 설립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성립 이후, 세브란스인들이 임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한 점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다.<sup>4)</sup>

2018년 9월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세브란스인들 중에서 의사 출신은 김필순 등 20명, 간호사 출신은 이정숙 등 7명, 교직원은 스코필드 등 5명으로 총 32명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한 세브란스인들은 60여명을 상회한다.<sup>5)</sup> 세브란스인들이 대거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3:1운동이 기폭제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특히 3:1운동에는 교수, 학생, 간호사, 직원 등 세브란스의 다양한 직군들이 참여하였는데,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이 연구는 기존 세브란스인들의 3:1운동 참여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에서 벗어나 각 직군별로 3:1운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조망함으로써 보다 조직적이고 연계적인 관점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일제하 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박윤희-홍태숙 신규환 임선미·김희곤, 「일제시기 한국의사들의 독립운동」, 『의사학』 17-2, 2008.12. ; 박형우, 「1910년대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6. ; 장규식, 「3:1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6. ; 반병률, 「세브란스와 한국독립운동: 3:1운동 시기를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8-2, 2015.12. ; 신규환, 「세브란스의 독립운동과 스코필드 교수」, 『강원사학』 28, 2016.11.

4) 신규환, 「상하이로 간 의사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세의사학』 21-1, 2018.6.

5) 2018년 8월 15일 제73회 광복절 기념으로 국가보훈처는 세브란스 출신 고병간(1925년 졸업, 애족장), 송영록(1927년 졸업, 대통령 표창), 정종명(1920년 졸업, 애국장) 등 3인을 새롭게 포상했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사람은 세브란스 출신 의사로는 김필순, 주현측, 신창희, 박서양(이상 1908년 졸업), 이태준(1911), 광병규(1913), 정영준(1915), 김창세(1916), 신현창(1918), 김병수(1921), 송춘근(1923), 배동석(2008년 명예졸업), 고병간(1925), 윤종석(1925), 송영록(1927), 안상철(1929), 문창모(1931), 광권웅(1933), 남상갑(1950), 김장룡(1956) 등 20명, 간호사로 정종명, 이정숙, 이정완, 김효순, 이도신, 노순경, 탁명숙 등 7명, 교직원으로 프랭크 스코필드, 이갑성, 이일선, 정태영, 스탠리 마틴 등 5명 등 총 32명이다. 이 중에서 고병간 윤종석, 송영록, 안상철, 문창모, 광권웅, 남상갑, 김장룡, 스탠리 마틴 등 9명은 3:1운동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후에 세브란스에 합류한 인물들이다.

## 2. 세브란스의 독립운동의 기반

1885년 제증원이 설립되고 그 이듬해 의학교육을 위한 제증원의학당이 설치되었다. 1886년 3월 경쟁시험을 통해 16명의 의학생이 선발되었다. 이들 의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정부관리나 군의로 나아갈 예정이었으나 졸업이 요원해지자, 각자 살길을 모색해야 했다. 이들의 최대 자산은 영어 실력이었는데, 일부는 영어실력을 자산으로 외부 교섭국장, 참서관 등 외교가의 실력자로 부상하기도 했고, 일부는 면장, 군수, 장교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었다.<sup>6)</sup>

사실 당시에는 의학교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독서 능력과 경험방만 가지고도 의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의료소비자들은 의료자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전문적이지 않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다.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의관(醫官)과 의원(醫員)이 있었지만, 주로 왕실과 관료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들을 접하기는 어려웠다. 개항 이후 서양식 병원이 등장하면서 서양의학이 보급되었으며,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양약국이나 병의원을 개업하여 약국에서 약을 팔며 진료도 하고, 의원에서 약을 팔기도 하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의업에 종사했다. 19세기말까지 한국사회에 가장 대중적인 의료기관은 간단한 문진이나 처방전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약포나 약방이었다.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전문적인 처방과 약재의 판매가 분화되었지만, 대부분의 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여전히 약국방을 이용한 의약품 소비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sup>7)</sup>

1885년 4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증원과 제증원의학당 등장 이후, 한국에서 서양식 근대의학은 공간적 확장을 지속했다.<sup>8)</sup> 서양식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제증원의학당과 관립의학교 등이 설립되면서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1900년 제증원의학당의 의학교육이 재개되면서 1908년 6월 세브란스병원의학교 명의로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의술개업인허장이라는 최초의 의사면허를 소지하게 되었다. 이후로 의사가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공인된 절차와 인증을 받아야 했다. 국가가 의사면허를 발급한다는 것은 의료의 일정한 수준을 국가가 보

6) 신규환 박운재, 『제증원 세브란스 이야기』, 서울: 역사공간, 2015, 52~56쪽.

7) 이흥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의약업의 변화와 개업의: 洋藥局과 藥房附屬診療所의 浮沈」, 『의사학』 19-2, 2010.12., 356쪽.

8) 신규환, 「근대 병원건축의 공간변화와 성격: 제증원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97, 2015.12.

증한다는 의미였고, 의료소비자들은 면허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이로 인해 20세기 이후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자유직업자로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은 의사들이 정치적 망명이나 이주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독립운동의 자금줄이나 정보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의사들은 전문인으로서 경제적 보상과 동시에 사회적 대우도 보장받았다. 의사들은 대부분 의사면허를 바탕으로 개업의로 나갔지만, 드물게는 대학 교수나 고위 관료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 의사가 고위직으로 나가지 않는다 해도,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데다가 병원이라는 고정된 공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또한 병원과 그들의 직업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식민당국자들의 의심스런 시선을 피하기에도 유리했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의학교의 초기 졸업생들은 의사면허에 기대어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필순은 서간도 통화(通化)와 북만주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 적십자병원과 북제진료소(北濟診療所)를, 박서양은 북간도 옌지(延吉)에서 구세병원(救世病院)을, 신창희는 안동(安東)에서 평산의원(平山醫院)을, 주현측은 상하이에서 삼일의원(三式醫院)을, 신현창은 상하이에서 해춘의원(海春醫院) 등을 설립하여 독립운동 기지로 활용했다.<sup>9)</sup>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받는 의사들이 안락한 길을 놔두고 고생길이 흰 독립운동의 길로 나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세브란스 출신 선후배들의 관계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1908년) 졸업생부터 제9회(1919년) 졸업생까지 거의 모든 기수의 졸업생마다 독립운동가가 포진되어 있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은 구한국 군대의 군대해산과 국권상실 등의 과정을 직접 목도하면서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들은 의학교와 병원에서 선후배로서 매일 만나는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간도와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했고, 뜻이 맞는 후배들과 연계하여 함께 독립운동에 나섰던 것이다.<sup>10)</sup>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초기 졸업생들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간도, 블라디보스토크, 북만주, 몽골, 상하이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안창호, 여운형, 김구 등 당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과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안창호는 김창세(1916년 졸업)의 손윗 동서였으며, 김필순(1908년 졸업)과 의형제를 맺은 관계였다. 안창호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김필순이 제공한 김형제상회에 머물렀는데, 김형제상회는 세브란스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세브란스 출신들과 교

9) 반병률,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11-1, 2008.6., 32~38쪽.

10) 신규환, 「상하이로 간 의사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세의사학』 21-1, 2018.6.

류가 빈번했다. 또한 세브란스 출신들 중 김창세(단우번호 121), 주현측(단우번호 168), 신현창 등은 안창호의 흥사단과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여운형, 김구 등은 상하이에서 최초의 망명 정당인 신한청년단을 조직하여 파리강화회의에 김구식을 파견하기도 했다. 여운형과 김구 등은 외교독립론이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시사책진회를 조직하였다. 김구의 동서인 신창희(1908년 졸업) 등이 신한청년단의 일원이었고, 정영준(1915년 졸업)과 신창희는 시사책진회의 일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세브란스 출신들의 독립운동 진영과의 다양한 교류는 독립운동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sup>11)</sup>

세브란스병원에는 1906년 9월에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가 개설되었으며, 교육기간은 3년 3개월이었다. 1910년 6월,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에서 첫 졸업생 배출되었다. 1914년 7월과 10월, 식민당국은 「산과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하여, 산과와 간호부의 면허자격을 제도화하였다. 산과나 간호부는 총독부 지정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경우에 면허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1924년 9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부속 산과간호부양성소가 총독부의 지정학교가 되면서 졸업생들은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고,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과 식민지에서도 면허가 통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1931년 6월의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부속 산과간호부양성소 규칙」에 따르면, 3년제 양성소를 졸업하면 산과면허와 간호부면허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산과교육과 간호교육을 별개로 유지했던 관립 간호학교와는 다른 운영체계였다.<sup>12)</sup>

이처럼 세브란스의 의학교육과 산과간호교육은 면허제도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개업이 가능했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했다. 따라서 세브란스인들은 이러한 경제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독립운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세브란스에서의 독립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의학교육과 간호교육은 근대적인 면허제도에 기초하여 독립적인 경제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나 간호사 출신들은 자신들의 교육적 배경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의 선구자이자 지원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둘째,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세브란스 출신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배경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의 입학부터 졸업 이후 독립운동에 참여하든지 해외유학을 가든지 국내 병원에 취업을 하든지 대체로 기독교 계통이나 선교병원 등의 인맥을 구축하며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세브란스 출신들은

11) 신규환, 앞의 글, 2018. 6, 53~73쪽.

12) 신규환, 「20세기 전후 동아시아 조산제도의 성립과 발전」, 『연세의사학』 11-2, 2008.12. ; 이꽃메, 『한국근대간호사』,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2, 134쪽.

해외선교사들과 교류도 활발해서 해외정보 등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다. 셋째, 세브란스에서의 다양한 교육경험은 인생향로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특히 다양한 교과에서 파송된 개성이 강한 선교사들로부터 철저한 신앙관과 인생관에 바탕한 청교도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며, 각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들로부터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았다. 대표적으로 스코필드, 맥라렌과 같은 교수들의 학문적, 신앙적 가르침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sup>13)</sup> 또한 선배들로 이어받은 1907년 군대해산과 부상자 치료의 경험, 제1회 졸업생과 제2회 졸업생 등의 독립운동의 체험 등은 정규교육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브란스만의 교육전통이었다. 또한 1913년 교과연합에 의해 세브란스연합의학교가 출범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은 다양한 교과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 다양한 교육경험을 체득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세브란스는 다른 병원이나 대학 등과는 달리, 교직원, 의학생, 간호부 등 구성원 전체가 독립운동에 관여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3:1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된 학생 중에서는 경성의전이 3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브란스의전은 10여명이었다. 당시 경성의전 재학생은 197명(체포 학생비율 15.2%)이고, 세브란스의전 재학생이 59명(체포 학생비율 16.9%)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1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된 학생들의 비율은 15~17%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반면 세브란스병원의 교직원, 간호부,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것에 비해, 관립인 조선총독부의원이나 경성의전의 교직원이나 간호부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관립기관의 조선인 학생 사회에는 평소의 민족차별 교육에 항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일본인 위주로 구성된 교직원 사회에서 교직원이나 간호부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이 깊다. 반면 세브란스와 같은 선교기관은 교직원, 간호부,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들까지도 독립운동에 온정적인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에서 3:1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3) 스코필드와 맥라렌의 학문적, 신앙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민성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맥라렌 교수의 생애와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세브란스인의 스승, 스코필드』, 서울: 역사공간, 2016.

14) 박윤형·홍태숙·신규환·임선미·김희곤, 앞의 글, 2008.12., 228~229쪽.

### 3. 3·1운동과 세브란스 독립운동의 전개

3·1운동 시기 세브란스의 독립운동은 대체로 세 가지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갑성·정태영·이일선·프랭크 스코필드 등 교직원이 주동한 활동이다. 두 번째는 이용설·김문진·김병수·배동석 등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이하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에 의한 활동이다. 세 번째는 정종명·이정숙·이성완·김효순·이도신·노순경·탁명숙 등 현직 간호부와 간호학생 등에 의한 활동이다.<sup>15)</sup>

#### 1) 교직원 독립운동

세브란스가 3·1운동의 주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19년 2월 11일 천도교측 송진우로부터 독립운동을 추진하자는 제의를 받은 이승훈(李昇薰: 1864-1930)이 세브란스병원 구내의 남대문교회에 들러 이갑성(李甲成: 1886-1981)과 함태영(咸台永: 1873-1964)을 만나 참여의사를 논의하면서부터였다. 이갑성은 세브란스의전을 중퇴한 뒤 세브란스병원에서 제약주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함태영은 남대문교회 조사(전도사)로서 시무하고 있었다. 이갑성과 함태영의 사택은 세브란스병원 구내에 있었고, 그들의 사택은 독립운동 추진을 위한 주요 거점이 되었다.

1919년 2월 22일, 이갑성은 학생들이 따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독립선언을 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중지하고 손병희 등이 주도하는 독립운동 계획에 참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갑성은 2월 27일 이인환(李寅煥)·박희도(朴熙道)·오화영(吳華英)·최성모(崔聖模)·이필주(李弼柱)·함태영(咸台永)·김창준(金昌俊)·신석구(申錫九)·박동완(朴東完) 등과 함께 이필주의 집에 모여, 최남선(崔南善)이 기초한 여러 가지 문서의 초안을 회람하고, 그 취지에 찬성하여 기독교측의 대표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2월 28일, 이갑성은 김창준으로부터 독립선언서 약 600매를 받아가지고, 그날 5매를 세브란스의전 학생인 이용설(李容高)에게 교부하고, 다음 날인 3월 1일에 400여 매를 자기 사무실에서 또 다시 이용설에게 제공하였다. 그중 200매는 대구의 목사 이만집(李萬集)에게, 나머지 200매는 마산(馬山)의 임학찬(任學瓚)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이갑성은 군산(群山)에 있는 박연세(朴淵世)에게 독립선언서를 전하기 위해 김병수(金炳洙)에게 200매를 주었으며, 서울에서는 강기덕(康基德)에게 1,500매를 주어 배포케 하였다.

2월 28일 밤, 재동(齋洞) 손병희의 집에 모인 손병희·이갑성 등의 민족대표들은, 당초에

15) 이하 세브란스 독립운동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신규환, 앞의 글, 2016.11., 82~90쪽.

독립선언 장소로 결정했던 파고다공원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다시 그 장소를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으로 정하였다. 민족대표들은 당일 이갑성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회합장소를 떠나지 않고 조용히 포박당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튿날인 3월 1일 오후 2시경 민족대표들은 태화관(泰華館)에 모였고, 이갑성은 조선총독부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sup>16)</sup>

함태영(咸台永: 1872-1964)은 대한제국시기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독립협회 사건 때 한성 재판소 검사로서 이상재 등을 무죄를 구형했다가 파면당했다. 이후 기독교에 입교하였고, 남대문교회 조사(助事, 일종의 전도사)로서 활동하면서 3·1운동에 가담하였고, 독립선언서 배포 등의 혐의로 3년형을 받았다.<sup>17)</sup> 함태영은 세브란스 학생YMCA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해왔다.

정태영(鄭泰榮)은 세브란스병원 회계 사무원으로 3월 1일 만세시위에 참석한 후, 3월 2일 밤에는 독립선언을 시민들에게 크게 알리고자 보신각 종을 난타했다. 이 사실은 샤룩스 선교사를 통해서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알려졌다. 보신각 종이 울렸다는 사실은 외국인들에게는 10년의 침묵을 깨고 한국민의 신생명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정태영은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월에 처해졌다.<sup>18)</sup>

이일선(李日宣: 1896-1971)과 유희경(劉熙慶) 등은 세브란스의전의 기사와 조선어 담당 교수로서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경 『독립신문』, 『반도목탁』, 『국민신보』 등 신문과 격문을 발간, 배포하였다. 그들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민신보』 1~26호, 「국치기념특별호」 등을 제작하였는데, “조선은 중국과 함께 동양문명의 근원이었으나 신홍의 일본민족은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동양의 선각자라 자칭하며 우리민족에게 만행과 폭거를 한지 오래되었다. 지금 인류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강, 약의 구별이 없이 모두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에 조상의 업적을 되살려 나라의 치욕을 깨끗이 설욕하자.”는 취지로 등사물을 배포하였다. 또한 그들은 상하이에서 전단을 반입하고 항일 활동을 하다가 스코필드 교수와 송춘근 등의 도움으로 천천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1919년 10월, 이일선은 일경에 의해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았다.<sup>19)</sup>

16) 『李甲成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覆審法院)』 1920.10.30., 관리번호CJA0000401.

17) 『咸台永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覆審法院)』 1920.10.30., CJA0000401.

18) 『鄭泰榮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地方法院)』 1919.11.6., CJA0000401.

19) 『불은문서 인쇄자, 이일선 외 3명이 잡혀』, 『매일신보』 1919.10.28., 3면; 『세브란스를 根據한 不逞徒 모두 검거되어』, 『매일신보』 1919.11.3., 3면; 『李日宣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地方法院)』 1919.12.11., CJA0000409.

샤록스(Alfred M. Sharrocks: 1872-1919, 謝樂秀)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표방할 것이라는 소식과 미국에서 이승만, 안창호 등이 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스코필드에게 전했다. 아울러 이갑성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 한국에서도 독립운동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언질을 주었다.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 샤록스(Alfred M. Sharrocks, 謝樂秀)는 쿠퍼 의대(Cooper Medical College)를 졸업하고, 1899년 9월 아내인 모리(Mory Ames)와 함께 내한하였다. 그는 우선 제중원의학당에서 에비슨(Oliver R. Avison)을 도와 해부학·생화학·생리학·약물학 등 의학교과서의 번역과 출판에 기여하였다. 샤록스는 1년 후 평양에서 활동하였고, 1901년 북장로교 선천지부가 개설되면서 선천에서 활동하였으며, 1904년부터는 강계지부에서 사역하였다. 샤록스는 1901년부터 1919년까지 주로 평안도 선천 미동병원(美東病院)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샤록스는 1917-1919년까지 세브란스 이사회의 이사였고,<sup>20)</sup>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다오면서 세브란스에 들러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를 교류했다. 그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미국 내 한국독립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전해주어 3·1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1919년 11월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sup>21)</sup>

스코필드는 1916년 10월 한국을 내한하여 세브란스연합의학교에서 세균학을 담당했다. 그는 학과수업 이외에 YMCA 등 각종 청년사회운동을 이끌며 선교활동 및 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 평소의 강직한 성품과 기독교청년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스코필드는 3·1운동을 외부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적임자로 여겨졌다. 이갑성은 스코필드에게 3·1운동의 진상을 해외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스코필드는 3·1운동의 진행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해외언론에 기고했다. 또한 그는 수촌리와 제암리에서 행해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했고, 수감자들의 고문과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sup>22)</sup>

3·1운동에서 스코필드의 활동은 대략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23)</sup> 첫째, 스코필드는 자신에게 요구된 3·1운동의 진상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찰하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1919년 3월 1일, 중요한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스코필드는 불편한 몸을 이끌며 카메라를 들고 과교다공원 언저리를 배회하였다. 갑자기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자 함성소리를 따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는 시위 군중을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물색하다가 일본인 케이크점에 들어갔다가 침입자로 여겨져 낭패를 겪기도 했

20) *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Korea, 1917, p.2.

21)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서울: 아카넷, 2003, 391쪽.

22) 김승태·유진·이항·염음, 『강한 자에는 호랑이처럼 약한 자에는 비둘기처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신규환, 앞의 글, 2016.11., 90~99쪽.

23) 신규환, 위의 글, 94~97쪽.

다는 일화로도 유명하다. 그는 그렇게 파고다공원에서 시작하여 대한문, 왜성대, 남대문, 서울역 등지로 시위대를 따라 쫓아다녔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고 이 사실을 국내의 신문에 기고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3·1운동 초기의 기록 사진은 모두가 스코필드의 사진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활동은 3·1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

둘째, 스코필드는 수춘리와 제암리 등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의 진상을 전세계에 알렸다. 3·1운동의 기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대와 일본 군경 사이에서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영문도 모른 채 양민학살이 진행되기도 했다. 1919년 4월에 발생한 대표적인 양민학살은 수원군(현 화성지역) 수춘리와 제암리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수원지역 만세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은 4월 6일 새벽 수춘리에 들어와 마을 전체를 불태웠는데,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총칼로 제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제암리에서도 만세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동네 사람들 30여명을 교회에 가두고 방화와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녀자 2명을 포함하여 23명이 학살되었고, 이웃 고주리에서도 6명의 천도교인들이 총살당했다. 4월 17일, 제암리 학살 사건의 소문을 듣게 된 스코필드는 수춘리와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수춘리 학살사건은 「수춘리 학살 보고서(Report of the Su-chon Atrocities)」라는 제목으로 미국 장로회 기관지 『Presbyterian Witness』 1919년 7월 26일자에 보도되었다. 제암리 학살사건은 「제암리 대학살(The Massacre of Chai-Amm-Ni)」이라는 제목으로 상하이 영자신문 『상하이 가제트(The Shanghai Gazette)』 1919년 5월 27일자에 보도되었다. 한 것 뜬소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았던 학살사건의 진상이 스코필드의 집념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셋째, 스코필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해외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만세사건으로 인해 수감된 수감자들의 인권과 고문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 외국인들에게 한국내 정세를 알리던 역할을 하던 *The Seoul Press*라는 영자신문이 5월 11일자 보도에서 서대문형무소를 ‘서대문요양소’ 혹은 ‘서대문 직업학교’라고 보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스코필드는 직접 서대문형무소를 드나들며 진상을 파악해 보았다. 그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노순경 등을 면회하였고,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유관순, 어윤희, 이애주 등을 만나 심한 고문과 야만적인 매질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스코필드는 자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세가와 총독과 야마가타 정무총감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한국인 학살문제와 재소자 인권과 고문문제를 제기하며 인권보호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스코필드는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명함을 반드시 받아두고 그들과 사진을 찍어두었다.

넷째, 스코필드는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3·1운동시기 언론활동을 통해 스코필드

가 기본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일본의 비인도적 만행과 그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서방언론의 태도였다. 그 때문에 일본을 옹호하는 동료선교사들의 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한국인들을 향해서도 애국심과 독립운동, 고등교육과 사회개혁 등에 관한 제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스코필드의 언론활동과 인권보호 운동으로 식민당국에게 스코필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일제는 영일동맹 때문에 영국출신의 스코필드를 강제 추방할 수 없었지만, 그를 강제 귀국시키도록 세브란스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으며, 몇 차례 암살을 시도하였다. 결국 1920년 4월, 스코필드는 캐나다로 향하는 귀향선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

## 2) 의학생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학생 YMCA

세브란스의전 학생 신분으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실형을 살았던 사람은 배동석(1년), 김병수(8월), 최동(7월), 김찬두, 김봉렬, 박주풍(이상 6월), 서영완(6월, 3년 집행유예), 김성국, 이평상(이상 무죄, 1920년 2월 27일까지 옥고) 등 9명이다.<sup>24)</sup> 이밖에 이용설은 일제의 3·1운동 주동자 체포를 피해 중국으로 망명했고, 김문진은 체포되었으나 기소중지로 풀려났고, 송준근은 3·1운동 당시에는 체포를 피했으나, 1910년 11월 춘천지역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중 체포되어 실형(1년 6월)을 살았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세브란스의전 학생 중에서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은 총 12명이다. 이들은 모두 세브란스 학생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청년회)의 대표 혹은 회원들이었다.

학생 YMCA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01년 9월 배재학당이 처음이고, 당시의 공식 명칭은 학숙청년회였다. 1903년 10월,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창설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YMCA의 출발로 여겨진다.<sup>25)</sup> 한국 YMCA의 창립에는 알렌, 에비슨, 언더우드 등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출발을 도왔다. 1910년 6월부터 매년 학생 하령회가 개최되면서, 학생 YMCA가 전국적인 조직이 되고, 활발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세브란스에는 1911년 6월경에 세브란스 학생 YMCA가 조직된 것으로 추정된다. 1914년 4월, 개성 한영서원에서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조선 YMCA 연합회)가 창립되었을 때, 세브란스 학생 YMCA, 중앙기독교청년회(중앙YMCA), 8개의 중등학교 학생 YMCA 등 10개의 조직이 참가하였다. 유일한 전문 학교 학생인 세브란스 학생 YMCA는 자연스럽게 조선 YMCA 연합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세브란스 학생 YMCA의 지도교수는 오궁선이였다.<sup>26)</sup>

24) 박윤형 홍태숙 신규환·임선미·김희곤, 앞의 글, 2008.12., 229쪽.

25) 전택부 지음,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서울: 범우사, 1994, 58~60쪽.

학생 YMCA의 목표는 학생들의 덕(德), 지(智), 체(體), 사교(社交)를 포함한 사육(四育)을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학생 YMCA 회원들은 일상적으로 종교활동, 교육활동, 체육활동, 사교활동을 주로 전개하였고, 주기적으로 지방과 농촌에 학생전도대를 파송하여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전도대는 전도활동을 비롯한 각종 계몽운동에 참여하여, 지방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학생전도대는 1910년대에는 종교적인 전도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3:1운동 이후 소위 신문화운동의 기치를 내걸면서 1920년대 전반에는 종교 및 문화 보급을 위한 신문화개혁의 강연대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는 이 활동이 모체가 되어 학생들의 농촌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였다.<sup>27)</sup> 학생 YMCA는 기본적으로 전도를 주목적으로 종교단체였으나, 교육과 체육 등 사회계몽 활동이 결합되어 있었고, 전국적인 조직망까지 갖추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독립운동 등 정치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이갑성은 세브란스의전 YMCA 임원진들과 친밀한 교분을 나누고 있었다. 이용설은 세브란스의전 YMCA의 전 회장이었고, 김문진은 현 회장이었다. 당시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은 대부분 YMCA 소속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브란스의전 YMCA를 통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중앙 YMCA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또한 학생 YMCA 이외에 서북학생친목회(김원벽, 한위건, 김형기)나 교남학생친목회(배동석, 윤자영) 등도 학생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2월 12일, 이갑성은 세브란스의전의 김문진, 이용설, 배동석, 연희전문의 김원벽, 경성의전의 한위건, 김형기, 경성전수학교의 윤자영을 병원내 자신의 사택에 초청하여 국내 독립운동 계획을 암시했다. 또한 2월 21일과 2월 23일에는 이갑성과 함태영의 사택에서 장로교 및 감리교 양 교단의 지도자 연석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갑성은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중 막내로 기독교 청년학생들의 조직과 활동을 담당했으며, 3:1운동 시기 세브란스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이갑성이 3:1운동에서 담당할 역할은 독립운동에 참가할 삼남지방의 기독교계 대표와 교섭하는 일과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일이었다. 2월 25-26일, 이갑성은 세브란스의전 학생 김문진을 대구에, 배동석을 마산에, 김병수를 군산과 전주에 각각 파견하였다.<sup>28)</sup>

한편 각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은 별도의 모임을 통해 3:1운동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주도하는 별도의 만세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1차 시위는

26) 전택부 지음, 위의 책, 184~192쪽.

27) 장규식, 「1910~20년대 연희·세브란스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사회참여 -학생YMCA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엮음,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연세』, 서울: 역사공간, 2016.

28) 「李甲成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覆審法院)』 1920.10.30., CJAC000401.

3월 5일로 김문진이 주도하고, 2차 시위는 이용설이 주도하기로 했다. 3월 5일 남대문 쪽에서 시위대가 형성되어 서울역 앞에 당도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는 다시 남대문 쪽으로 향했고, 출동한 경찰과 기마대가 시위대를 포위했다. 한 무리의 시위대는 남대문시장, 조선은행, 종로를 향해 갔고, 다른 한 무리는 남대문, 대한문, 광화문을 향한 다음 종로에서 합세하여 이날의 시위는 대성공을 이뤘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대대적인 학생 검거열풍이 불어 2차 시위는 시도되지 못했다.<sup>29)</sup>

이용설(李容高: 1895-1993)은 세브란스의전 YMCA의 전 회장이었고, 세브란스의전 대표 자격으로 만세운동을 위한 대표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학생동원의 책임을 맡아 가두시위를 진두지휘하였다.<sup>30)</sup> 이용설은 이갑성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를 대구, 마산, 군산 등지로 배포하는 책임을 졌다.<sup>31)</sup> 학생들이 주도했던 3월 5일 만세시위 이후 일본경찰의 검거열풍이 일자 이용설은 중국 망명 길에 올랐다. 이용설은 3·1운동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1938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sup>32)</sup>

김문진(金文軫: 1895-1925)은 세브란스의전 YMCA의 회장으로 만세운동의 대표자모임에 참석하고 가두시위를 주도했다. 2월 28일, 김문진은 이용설과 함께 정동 예배당에서 2천여 장의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는 3월 1일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으며, 3월 5일의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보안법위반으로 대구지검에 체포되었으나 단순가담자로 분류되어 기소 중지되었다.<sup>33)</sup>

배동석(裴東奭: 1891-1924)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대구 계성학교 재학 중 배일혐의를 받아 옥고를 치른 적이 있었다.<sup>34)</sup> 그는 계성학교 퇴학 후 경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910년 이갑성과 함께 경신학교를 제5회로 졸업하였다. 그 후 그는 목포에서 교사활동을 하던 중 항일활동 혐의로 체포된 후, 만주에서 김좌진 등과 항일운동을 벌이다가 1918년 귀국하여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였다. 배동석은 1919년 당시 2학년생으로 세브란스의전 교남(영남)학생친목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배동석은 2월 26일 마산지역 만세운동을 규합하기 위해 마산을 방문하여 박순천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다. 3월 1일 만세운동 당일에는 민족대표들이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배동석은 탑골공원의 만세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3월 1일

29) 「내가 겪은 20세기, 여천 이용설, 『경향신문』 1972.3.25., 4면.

30) 위의 글, 4면.

31) 「47인 예심결정서(5), 『동아일보』 1920.4.10., 3면.

32) 「李容高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覆審法院)』 1940.8.21., CJA0000588.

33) 「金文軫 判決文, 『大邱地方檢察廳 刑事事件簿』 1920.5~8月.

34) 배동석의 생몰연대에 대한 기록은 약간 차이가 있다. 국가보훈처 공훈기록에는 배동석의 생몰연대를 1889-1924년으로 적고 있으나 연세대학교 학적부에는 1891년 출생으로 기록하고 있다.

만세운동 이후 배동석은 김해로 내려가 임학찬, 배덕수 등과 함께 김해 만세운동을 조직하고, 3월 30일 밤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배동석, 임학찬, 배덕수, 박덕수 등이 일본군에 의해 함께 검거되었다. 배동석은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sup>35)</sup> 배동석은 의학생 중에서는 가장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경력이나 연배 등을 고려할 때, 핵심 주동자로 간주된 듯하다. 배동석의 막내 처남의 증언에 따르면, 배동석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눈알이 빠지고 손발톱이 빠지는 혹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sup>36)</sup> 세브란스병원 에비슨 원장은 배동석의 병보석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배동석의 결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에 결핵병동이 설립되기도 했다. 국내 최초의 결핵병동이었다.

학생조직을 담당했던 이용설, 김문진, 배동석 등은 3:1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한 장짜리 등사지에 각지에서 일어난 시위 소식, 파리평화회의 소식, 격문 등이 실렸다. 이용설의 회고에 따르면, 이 신문은 세브란스병원 전 외래진료소 4층에 있는 해부학 교실 옆 사진 암실에서 인쇄되었다. 하지만 신문 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19년 5월, 붉은 신문이 세브란스병원 구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경찰이 병원을 수색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인쇄기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주동자로 몰린 이용설은 중국 망명의 길을 택해야 했다.<sup>37)</sup>

김병수(金炳洙: 1898-1951)는 2월 26일 이갑성으로부터 각 지역 유명인사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아 군산에 도착했다. 김병수는 영명학교 시절 은사인 박연세의 집에서 이두열, 김수영, 김윤실, 김인목, 이동욱, 고석주 등과 만나 3:1만세운동 계획을 전달했다. 2월 28일, 김병수는 독립선언서 100매를 박연세에게 전달하기 위해 또 다시 군산으로 향했다. 군산에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만세운동이 3월 5일로 미뤄졌다. 군산 3:5독립만세운동은 영명학교에서 시작되어 군산경찰서 앞에서 군경과 대치하였고, 90여명의 청년들이 체포되면서 종결되었다. 김병수는 군산에 서울의 3:1만세운동 계획과 독립선언서를 전하고 곧바로 상경해 3월 5일 남대문 정거장 앞에서 세브란스의 김문진, 배동석, 김성국 등과 수백 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원래 학생들은 3월 5일 제2차 시위 이후 매주 1회씩 만세시위를 펼쳐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3월 5일의 시위에 대해 일제는 대대적인 무차별 진압과 검거로 응대했다. 김병수는 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또다시 군산에 내려와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머리를 부상을 입었다. 4월에는 4:4 이리만세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얼마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0년 2월 경성복심법원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8월을 선고했다.<sup>38)</sup>

35) 『斐東稟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地方法院)』 1920.11.6., CJA0000401.

36) 신규환, 「배동석과 삼일운동」, 『세브란스병원보』, 2018년 6월호.

37) 「망명생활도 한 의학박사 이용설」, 『동이일보』 1961.10.16., 4면.

송춘근(宋春根 혹은 宋鳳海: 1887-1971)은 당시 세브란스의전 3학년으로 학생동원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지만, 일본 경찰의 체포를 피할 수 있었다. 3·1운동시기 송춘근의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는 세브란스의전 스코필드 교수를 도와 일제의 한국인 학살만행 사진을 언론사에 전달하는 일이었다. 또한 그는 『독립신문』, 『국민신문』 등을 춘천지역에 배포하여 임시정부의 활동상과 독립운동에 관한 실상을 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1910년 11월, 송춘근은 춘천지역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중 체포되어 1920년 10월 경성지방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sup>39)</sup>

박주풍(朴周豊, 1892~?)은 함북 명천 출신으로 1919년 당시 세브란스의전 4학년생이었다. 그는 이용설, 김문진 등을 통해 3·1운동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3월 1일 오후 2시경 파고다공원의 만세시위와 3월 5일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이후 출판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은 징역 6개월(미결구류 일수 90일 산입)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sup>40)</sup>

서영완(徐永琬, 1898~?)은 1919년 당시 막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었다. 서영완은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했고, 3월 5일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서영완은 출판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으로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은 징역 6개월(미결구류일수 90일)을 선고했다. 출옥 이후 서영완은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지 않고 1922년 4월 난징(南京) 진링대학(金陵大學, 현 난징대학) 유학을 위해 도향하였는데, 고려공산당에 가입하고 임시정부 헌법개정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섰다.

최동(崔棟: 1896-1973)은 도쿄 교세이학교(曉星學校)를 졸업하고 1915년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다니다가 1916년 안식년으로 미국에 와 있던 세브란스의전의 에비슨 교장의 강연을 계기로 1917년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였다.<sup>41)</sup>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출판법 위반 및 보안법위반으로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은 징역 7개월(미결구류일수 120일)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sup>42)</sup>

경성부 화천정(和泉町, 현 중구 순화동) 126번지 오한영(吳翰泳)의 집은 1919년 당시 3·1운동에 참가했던 세브란스의전 학생 6명, 즉 김문진, 배동석, 김성국, 김봉렬, 김찬두, 이광상이 하숙하였던 곳이었다. 이 하숙집에 사는 사람들이 3·1운동에 많이 참여하게 된 데에는 세브란스 학생 YMCA

38) 『金炳朱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地方法院)』 1920.2.27., CJA0000150.

39) 『宋春根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地方法院)』 1920. 10. 8, CJA0000404.

40)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8.30., CJA0000401 ;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11.6., CJA0000401.

41) 이하 최동의 생애는 신동환, 『세브란스 인물사 3: 한국 최초의 외과병리 및 임상병리학자 최동 박사』, 『연세의사학』 2-1, 1998과 『재중원 세브란스인의 사회공헌』, 서울: 역사공간, 2016, 35~36쪽을 참고함.

42)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8.30., CJA0000401 ;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11.6., CJA0000401.

대표인 김문진과 항일운동 경력이 풍부했던 배동석이란 두 지도적인 인물의 영향이 컸다. 김봉렬, 김찬두, 이평상은 1919년 당시 세브란스의전 1학년이었다.

김성국(金成國, 1890~?)은 부산 출신으로 당시 세브란스의전 3학년생으로 학생 중에서는 최고령이었다. 김성국은 이갑성과도 1919년 2월 26일 이갑성의 부탁을 받고 원산으로 가서 목사 정춘수(鄭春洙)를 만나 독립운동 청원서에 첨부하기 위한 서명을 받아서 돌아왔다. 2월 28일 오후 8시 다시 이갑성을 만나 그와 함께 이종일(李鍾一)의 집에 가서 조선독립선언서 약 1,000장을 받아가지고 승동에배당으로 가서 강기덕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sup>43)</sup> 이후 3월 1일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출판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으로 1919년 11월 6일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2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sup>44)</sup>

이평상(李宏祥, 1892-1934)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1919년 2월 28일 김문진과 하숙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으며 3:1운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다음 날인 3월 1일 김문진은 이번엔 이평상에게 독립선언서를 마산의 임학찬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평상은 임학찬(林學贊)에게 독립선언서를 건네주느라 서울의 3:1운동에는 참가할 수 없었다.<sup>45)</sup> 1919년 4월, 이평상은 하숙집에서 은신 중 체포되었으며,<sup>46)</sup> 출판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으로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미결구류일수 120일 산입)을 선고받았고,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sup>47)</sup>

김찬두(金瓊斗, 1897~?)는 평남 대동 출신으로, 연희전문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세브란스의전에 진학했다. 김찬두는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은 징역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미결구류일수 90일 산입) 선고했다.<sup>48)</sup>

43) 「공판시말서」 1919.9.3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8,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이하 『독립운동사자료집』으로 약칭하고 권호와 연도만 표시) ; 「공판시말서(제2회)」 1920.1.28., 『독립운동사자료집』 19, 1994.

44)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8.30., CJA0000401 ;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11.6., CJA0000401 ;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20.2.27., CJA0000150.

45)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90, 121~125쪽;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88, 104~108쪽, 111~114쪽, 156~184쪽; 「이평상 신문조서」 1919.5.2.,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90 ; 「이평상 신문조서」 1919.5.5., 『독립운동사자료집』 15, 1991 ; 「공판시말서(제3회의 1)」 1919.9.30., 『독립운동사자료집』 18, 1994.

46) 「이평상에 관한 수사보고」, 1919.4.26.,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90.

47)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8.30., CJA0000401 ;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11.6., CJA0000401 ;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20.2.27., CJA0000150.

김봉렬(金鳳烈, 1897~?)은 평남 출신으로 김찬두와 마찬가지로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세브란스의전에 진학했다. 김봉렬은 3월 1일 과고다공원 만세시위에 참여하였고, 3월 5일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은 징역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미결구류일수 90일 산입)를 선고했다.<sup>49)</sup>

앞서 1920년 5월 조선학생대회 창립에 세브란스의전 학생 대표로 참여했던 김성국과 김찬두 두 사람은 각각 자리잡았던 지역은 달랐지만, 김성국은 대구에서, 김찬두는 서흥에서 같은 이름의 병원(순천당)의원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지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자에 대한 무료치료 등으로 명망이 높았던 점은 공통적이었다. 이렇듯 같은 하숙집에서 동숙했던 6명의 세브란스의전 인물들은 다양하게 얽혀있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던 동료들이었다.

### 3) 간호부 독립운동

정종명(鄭鍾鳴: 1896-?)은 1917년 세브란스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에 입학했다. 4년 동안 배화학당을 다녔던 정종명은 이미 결혼해서 슬하에 자식을 두었지만, 스스로 “여성의 경제독립을 위하여 간호부가 될 작정”이었다. 3·1운동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정종명은 학생시위를 주도하던 강기덕이 학생들의 시위연락을 도왔으며, 이갑성의 중대 서류를 맡아두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sup>50)</sup> 정종명은 1920년 세브란스의전 부속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하고, 1년 과정의 조선총독부의원 산과강습소에 다시 입학했다. 그녀는 산과면허를 취득한 후, 곧바로 안국동에 자신의 조산원을 개원했다. 아마도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간호부보다 산과가 더 유리하다가 판단했던 것 같다. 그녀는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up>51)</sup>

정종명 이외에도 3월 5일 오전 남대문 정거장 앞 광장에서 벌어진 만세 시위대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현직 간호부 11명이 봉대를 휴대하고 군중 속에 섞여 있다가 체포당하기도 했다.<sup>52)</sup> 체포된 11명은 이정숙, 노순경, 박덕혜, 이도신, 김효순, 박옥신, 윤진수, 이성완, 이아주, 장윤희, 체계복 등이었다.<sup>53)</sup> 오웬스의 보고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간호학생들은 3월 5

48)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8.30., CJA0000401;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11.6., CJA0000401.

49) 위의 글.

50) 정종명, 「빈곤, 투쟁, 고독의 반생」, 『삼천리』 2, 1929, 35쪽.

51) 이꽃메, 앞의 글, 2012.12.

52) 金正明 編,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1, 국학자료원 영인, 1998, 328쪽; 이꽃메, 위의 글.

일 시위에 거의 모두 참여하였고, 그 중 15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 중 장윤희는 경신학교 4학년 학생 박인석이 제작한 독립운동가를 정신여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였고, 세브란스병원에서 6백부를 등사한 후 세브란스병원, 경신, 배재, 이화, 중앙 등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 이 일로 장윤희는 징역 3월에 형집행유예를 받았다.<sup>54)</sup>

세브란스병원 간호부들은 애국지사들의 옥바라지와 가족을 후원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했는데, 혈성단애국부인회가 그것이다. 이정숙, 이성완, 박옥신, 윤진수를 비롯하여 노순경, 박덕혜, 이도신, 이아주, 장윤희 등이 회원으로 활약했다. 혈성단애국부인회는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의 권유에 따라 혈성단애국부인회와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 등이 통합하여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목표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결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이정숙을 비롯한 세브란스병원 간호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세브란스 간호부의 독립운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 중의 하나는 이정숙(李貞淑: 1896-1950)이다. 이정숙은 1919년 3월 20일 정신여학교 졸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1운동 소식을 듣고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부상자 치료를 도우면서 견습간호부가 되었다. 1919년 11월, 이정숙은 이성완 등 정신여학교 출신 동기들과 함께 결성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적십자부 책임자인 적십자장을 담당했다. 이정숙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출옥 이후에도 조선여성해방동맹과 경성여자청년회 등을 조직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sup>55)</sup>

이성완(李誠完: 1900-1992) 역시 1919년 3월 20일 정신여학교 졸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정숙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고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부상자 치료를 도우며 견습간호부가 되었다. 그녀는 혈성단애국부인회에 참여하였고,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는 결사부의 책임자인 결사장으로 합류하였다. 그녀는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의 조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박덕혜(朴德惠, 20세), 노순경(盧順敬: 1902-1979, 당시 18세), 이도신(李道信, 19세), 김효순(金孝順, 18세) 등은 12월 2일 경성부 종로일대인 훈정동(薰井洞) 대묘전(大廟前)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켜 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sup>56)</sup> 이들은 판결결과에 불복하고 법정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sup>57)</sup>

3:1운동시기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간호사는 20명인데, 그 대부분이 세브란스병원 소속 간

53) 김숙영, 앞의 글, 2015.4., 10쪽.

54)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 서울: 대한간호협회, 2012, 105~106쪽.

55) 김숙영, 앞의 글, 2015. 4, 28~29쪽.

56) 『保安法違反犯, 네명은 각 징역 육개월, 『매일신보』 1919.12.20., 4면.

57) 『騷擾犯四名, 제일심에 불복하고 다시 공소신립, 『매일신보』 1919.12.29., 4면.

호사들이었다. 이정숙, 이성완 등은 만세운동이 평화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앞장 섰고, 정종명 등은 민족대표 33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장윤희 등은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다.<sup>58)</sup>

#### 4. 맺음말

이 글은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의전이 어떻게 3·1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세브란스인들이 3·1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은 세브란스의 독립운동 전통과 독립운동의 기반에 대해 주목하였다. 제중원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서양병원으로서 한국사회에서 계몽적 위치에 있었고, 제중원의학교 출신 학생과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제중원 의료선교사들 역시 의료활동과 선교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각종 사회운동과 계몽운동에 참여하여 한국인들의 문명개화와 고등교육을 선도하였다. 특히 1907년 구한국 군대의 해산과 부상병치료,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제2회 졸업생들의 독립운동 및 사회운동 참여 등으로 세브란스인들은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졌다. 더욱이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초기 졸업생들은 안창호, 여운형, 김구 등 독립운동계의 주도적 인물들과 다양한 인적 교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라는 특수신분을 활용하여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형성하고 있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의전은 기독교 선교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의 진진기지가 되었다. 기독교계의 지도적 인사들은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세브란스의 교직원, 의학생, 간호부 등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우선 이갑성 등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독립운동의 방향 설정, 정보수집 및 선전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이갑성과 함태영 등은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운동을 조직화하였고, 학생들과의 연계를 통해 3·1운동의 전국화에 기여하였다. 교직원들 중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역할 또한 작지 않았는데, 샤룩스와 스코필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샤룩스는 1919년 당시 세브란스병원 이사회의 이사였으며, 세브란스 인물들과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브란스에 제1차 세계대전의 사후처리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등에 관한 국제정세에 변화를 전해주었고, 이에 대한 대처 가운데 한국인들과 기독교계가 3·1운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된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스코필드는 3·1운동의 진전 상황을 전 세계에 타전

58) 김려화·김미영,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연구」, 『간호행정학회지』 20-4, 2014.9., 461쪽.

함으로써 자주 독립에 대한 한국민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의학생들은 학생 YMCA 조직을 통해 독립선언서의 전국적인 배포와 가두시위 참가 등 3·1 운동의 전국적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학생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고, 만세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의학생들의 개인적인 경험은 서영완처럼 의학을 포기하고 독립전선에 직접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배동석처럼 고문으로 짧은 생애를 마쳐야 했던 경우도 있었고, 김병수·송춘근처럼 사회운동에 투신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용설·최동처럼 의학자의 길을 택한 경우도 있었다. 간호부들은 가두시위 참가 이외에 수감자 지원 및 독립운동 자금모집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신여학교 출신들이 견습간호부로 활동하면서 3·1운동에 참여한 것이었는데, 간호부들의 독자적인 만세시위 및 독립운동 자금 모집 등은 동원이나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점에서 세브란스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매일신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삼천리』

『李甲成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覆審法院)』 1920.10.30., 관리번호CJA0000401.

『咸台永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覆審法院)』 1920.10.30., 관리번호CJA0000401.

『鄭泰榮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地方法院)』 1919.11.6., 관리번호CJA0000401.

『李日宣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地方法院)』 1919.12.11., 관리번호CJA0000409.

『李容高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覆審法院)』 1940.8.21., 관리번호CJA0000588.

『金炳洙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地方法院)』 1920.2.27., 관리번호CJA0000150.

『裴東奭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地方法院)』 1920.11.6., 관리번호CJA0000401.

『宋春根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地方法院)』 1920.10.8., 관리번호CJA0000404.

『金文軫 判決文』, 『大邱地方檢察廳 刑事事件簿』 1920. 5~8月.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19,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8~1994.

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Korea, 1917.

### 2. 연구서 및 연구논문

김동수, 「세브란스와 함께 바람에 시달리며-이용설」, 『기독교사상』10-1, 1966.1.

김려화·김미영,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연구」, 『간호행정학회지』20-4, 2014.9.

김숙영, 「간호부 이정숙의 독립운동」, 『의사학』 24-1, 2015.4.

김승태·유진·이항 역음, 『강한 자에는 호랑이처럼 약한 자에는 비둘기처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金正明 編,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1, 서울: 국학자료원 영인, 1998.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 서울: 대한간호협회, 2012.

민성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맥라렌 교수의 생애와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박윤형·홍태숙·신규환·임선미·김희곤, 「일제시기 한국의사들의 독립운동」, 『의사학』 17-2, 2008.12.

박형우, 「1910년대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6.

박형우, 「세브란스의학교 제1회 졸업생 신창희(申昌熙)의 생애와 활동」, 『연세의사학』 11-1, 2008.6.

박형우·홍정완, 「박서양의 의료활동과 독립운동」, 『의사학』 15-2, 2006. 12.

반병률,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11-1, 2008.6.

반병률, 「세브란스와 한국독립운동: 3·1운동 시기를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8-2, 2015.12.

- 신규환, 「20세기 전후 동아시아 조산제도의 성립과 발전」, 『연세의사학』 11-2, 2008.12.
- 신규환, 「근대 병원건축의 공간변화와 성격: 제중원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97, 2015.12.
- 신규환, 「세브란스의 독립운동과 스코필드 교수」, 『강원사학』 28, 2016.11.
- 신규환, 「상하이로 간 의사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세의사학』 21-1, 2018.6.
- 신규환, 「배동석과 삼일운동」, 『세브란스병원보』, 2018년 6월호.
- 신규환·박윤재, 『제중원 세브란스 이야기』, 서울: 역사공간, 2015.
-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세브란스인의 스승, 스코필드』, 서울: 역사공간, 2016.
- 왕현중, 「일제하 원주 서미감병원의 설립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치」, 『동아시아 역사 속의 선교병원』, 서울: 역사공간, 2015.
- 이규식·양정필·여인석, 「최동의 생애와 학문」, 『의사학』 13-2, 2009. 12.
- 이꽃메, 「일제강점기 산과 정종명의 삶과 대중운동」, 『의사학』 21-3, 2012.12.
- 이꽃메, 『한국근대간호사』,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2.
- 이애숙, 「정종명의 삶과 투쟁-민족과 여성의 해방을 위해 싸운 한 여성투사 이야기」, 『여성』 3, 여성사연구회, 창작과비평사, 1989.
- 이흥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의약업의 변화와 개업의: 洋藥局과 藥房附屬診療所의 浮沈」, 『의사학』 19-2, 2010.12.
- 장규식, 「1910~20년대 연화·세브란스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사회참여 -학생YMCA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엮음,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연세』, 서울: 역사공간, 2016.
- 장규식, 「3:1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6.
- 전택부 지음,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서울: 범우사, 1994.

투고일: 2018. 8. 6

심사일: 2018. 9. 4

게재확정일: 2018. 9. 14

<Abstract>

## The March 1st Movement and Severance Hospital in Korea

Sihn, Kyu-Hwan\*

The paper examined how Severance Hospital and Severance Medical College became the center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what role the Severance people played in the March 1st movement. Chejungwon was the first Westernized hospital in Korea in 1885 and Chejungwon Medical School(CMS) was established in 1886. The early medical students of Severance Medical College(SMC), the successor of CMS, came to realize the need for an independence movement while treating soldiers during the process of disbanding the military in 1907. After Japan's annexation of Korea, the majority of the early graduates at SMC joined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y used their status as doctors to raise funds and provide information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Severance Hospital and SMC became an advance bas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leading members of the Christian community began discussing independence movements at Severance Hospital, while the faculty, medical students, and nursing staff of Severance Hospital performed their roles faithfully.

The medical students of SMC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wide distribution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participation in street demonstration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students YMCA. They distribut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round their hometown and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spread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national movement. Nursing students also participated in street demonstrations and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necessary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such as raising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supporting inmates.

---

\*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of Medical History, Division of Medical History,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 C I

Keywords: Chejungwon (House of Universal Helpfulness), Severance Hospital, Severance Medical College, March 1st Movement, YMCA, Independence movement